

# 反復複合語의 統辭·意味機制 研究

—濟州 方言의 경우—

康 祐 順

## 目 次

- |                |                   |
|----------------|-------------------|
| I. 序論          | IV. 意味資質의 體系 및 檢證 |
| II. 對象資料와 研究節次 | V. 生成上의 統辭構造      |
| III. 意味資質의 確立  | VI. 結論            |

## I. 序 論

본고<sup>1)</sup>에서 대상으로 삼는 反復複合語란 소위 擬聲語 擬態語로 지칭되어 온 象徵性 副詞群들을 가리킨다. 이 대상 자료들은 同一 語根이나 語幹의 反復이라는 反復複合의 形式을 띠고 있다.

李明燮(1983:42)에서는 그 어간의 직접구성 성분(IC)이 모두 어간이거나 어근, 또는 그보다 큰 언어형식의 단어를 複合語(compound word)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그것이 두 다른 언어형식의 복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같은 형식의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일반 複合語와 구별하여 反復複合語(reduplicative compound)로 인식하고 있다.<sup>2)</sup>

1) 강자는 '濟州 方言의 反復複合副詞 形成에 대한 規則化 試論'(1987:미간)을 초임논문으로 제출한 바 있는데, 본고는 이를 다소 수정한 것이다.

2) 이는 종래에 설정하였던 개념, 즉 獨立性이 있는 단어 또는 語源의 語根이 重複되어 結合하는 경우를 흔히 疊語(duplication)라 불렀고, 同一한 語音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同音疊語, 類似한 音이나 音群이 중첩하는 경우를 類音疊語

일정 지역의 個別方言에 대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서로 차이가 있는 방언들의 몇몇 語彙素들을 方言周圍說 입장에서 어느 이른 시기의 언어자료의 投影 또는 그 자료에 遡及되는 것으로 보고 연구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한 方言의 全貌를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둘째, 각 방언들에 대해 그들의 固有性和 獨自性を 부여하고 그들마다의 구조를 수립하려는 構造方言學의 방법이 있다. 이는 同質性(Affinity)을 공유하는 구조들 사이의 有緣性 확립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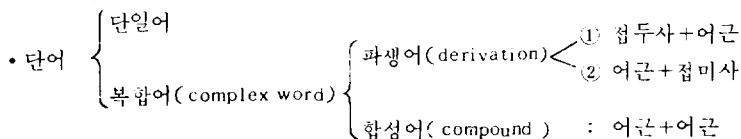
셋째, 한국어라면 어떤 방언이든 준수하게 되는 抽象的 構造를 原理의 體系로써 수립하고 매개변수(parameter)의 설정을 통해 각 방언마다의 특수 경향(idiosyncrasy)을 포착하도록 하는 生成文法 응용의 방법이다. 아직 이 방법은 진지하게 시험되고 있지 못하나, 理性主義에 입각하여 과학적으로 언어를 다루기 위해서는 조만간 활발한 논의와 응용이 기대되는 영역이다.

본고는 세번째 입장에서 자료를 濟州 方言에 국한시켜 反復複合語의 統辭·意味的 機制를 탐색하려고 한다. 그 결과가 일단 매개변형적 차원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보편적 언어자질의 탐색은 반드시 개별의 구체적 言語財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본고의 論議 전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제Ⅱ장에서는 우선 既刊 方言 資料集<sup>3)</sup>과 주변의 언어재료를 통해서 반복복합어의 자료를 뽑아낸다.

라 하여 복합어와 대립적으로 인식한 점을 지양한 것이다.

또한 구 문법에서는 단어를 단일어와 합성어로 분류하고, 합성어 안에서 복합어와 파생어로 분류했었으나, 새 문법에서는



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에 '複合'이라는 말로 불리던 'compounding'을 '合成'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논의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종래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compound'를 '複合語'라 부르겠다.

3) 朴用厚(1960)「濟州方言研究」(동원사), 玄平孝(1962)「濟州島方言研究」(資料編)(精研社), 金榮敦(1965)「濟州島民謠研究」(上)(일조각), 玄容駿(1980)「濟州島巫俗資料事典」(진구문화사) 등이 참조가 된다. 필자가 본고에서 제주 방언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시킨 것은 제주 방언이 필자의 직관을 가장 활발

그리고 그 각각의 단어를 다시 動詞로 환원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象徵語 그대로 남는 것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후자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전자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제Ⅲ장에서는 동사로 환원될 수 있는 반복복합어들을 각각 語根과 接尾形態素로 분석해 보고 그 접미형태소의 의미자질을 찾아내는 과정을 보인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각Ⅲ장에서 설정한 의미자질들의 體系化 模型을 보이고, 본고에서 지정한 의미자질의 타당함을 보이기 위하여 몇몇 結合 可能的 事例를 놓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結合 不可能한 事例도 왜 불가능한지를 설명해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單語의 生成에 따른 統辭構造를 보임으로써 논의를 끝맺겠다. 본고의 試論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발견될 수 있는 논리적 취약점은 차후 보완하여 나가기로 한다.

## Ⅱ. 對象資料와 研究節次

### 1) 資料의 範圍

본고에서 다룬 反復複合語는 두 言語 形式의 반복형태이므로 편의상 반복의 앞부분을 'X', 뒷부분을 'Y'라 하기로 한다. 필자가 수집한 반복복합어의 자료를 고찰해 보면, 아무런 형태상의 변동이 없이 반복되는 XX형태와 구성성분의 일부가 변동을 일으키며 반복되는 XY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전자를 同型反復複合語라 하고 후자를 異型反復複合語라 부르기로 하자.<sup>4)</sup>

姜公宅(1986)은 異型反復複合語를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본고에서는 XX형태의 동형반복복합어가 가장 순수한 형태의 반복복합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동형반복복합어에 한정시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라지 사용할 수 있는 母語이기 때문이며, 이 제주 방언에 있어서의 반복복합어에 대한 연구가 표준어에서의 반복복합어의 형성규칙에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것은 한자어는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각 방언의 集合이며, 제주 방언은 상의나외일 한국어의 變種(variety)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반복복합어의 구체적인 자료는 지면사정상 생략한다. (강호순(1987:미간) 참조)

XX형태 : 두작두작, 들랑들랑……  
XY형태 : 알랑날랑, 부송만송……

동사로부터 부사를 파생시키는 데 쓰이는 副詞化 接尾形態素들을 공시적인 관점에서 간추려 본다면 우리는 幾十의 副詞化素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업적들은 대개 이러한 형태소들을 目錄化하는 데 만족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개별적인 意味機能을 깊이 있게 탐색해 보려는 노력은 극히 최근의 일이었다.

沈在箕(1982)에서는 부사를 만드는 語彙形成機制로 零變化(Zero modification), 反復法(Reduplication), 接尾法(Suffixiation)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제주 방언 반복복합어의 單語形成法은 주로 둘째의 경우인 語根이나 語幹의 형태를 반복하여 부사로 轉用되는 反復法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진다. 動詞語幹이 반복하여 반복복합어를 형성할 때에는 接尾形態素가 필요없이 동사의 語根(語基)이나 語幹 자체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형태도 있지만, 이러한 동사 어간형태만의 반복으로는 語彙的 安定性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휘로서의 안정성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어휘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무엇인가 더 보충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 때는 그 동사어간을 다시 狀態性으로 바꾸는 接尾形態素를 필요로 한다. 즉 접미형태소가 필요없이 동사의 어간 자체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형태와, 반복할 때, 어근이나 어간형태만의 반복으로는 안정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반복을 위한 접미형태소를 필요로 하는 형태의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후자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시키는데, 필자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형반복복합어 759개의 어휘 중 '動詞語根(語幹)+接尾形態素'의 반복으로 형성된 것은 95개의 어휘였다.<sup>5)</sup>

## 2) 研究節次

본고에서는 同型反復複合語 중에서도, 그 구조를 '동사어간+접미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는 어휘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에 대한 연구의 방향은 최소한 다음 몇 가지 이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동사어간 부분만을 독립적으로 살피고 그 특질 등을 연구할 수 있다. 둘째, 접미형태소 부분만을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셋째, 동사어간 부분과 접미형태소 부분의 결합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연구의 방향은 서로 제

5) 여기서 '動詞'라 함은 중전의 動詞(動作動詞), 形容詞(狀態動詞)를 모두 합하여 일컫는 말이다.

각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방향을 연구의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차원의 결론이 도출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동사어간 부분이나 또는 접미형태소 부분을 각기 독자적으로 연구할 때에는 그들의 內部特質을 밝혀내는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나, 이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양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는, 그 내부특질을 밝히는 작업에 우선하여 수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다. 그것은 곧 동사의 어간부분과 접미형태소 부분의 결합체에서 이들의 결합을 어느 부분에다 중점을 두고 결합양상을 밝혀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서로 결합 가능한 連結體라 한다면 이런 결합 가능성이 어디에서부터 동기지어지는지를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검작업은 모든 結合體를 검토하고 난 뒤에 귀납적인 형식으로 유도할 수는 없다. 우리의 言語資料가 무한히 열려 있으므로 모든 자료를 검토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자료의 畧에 빠져 헛수고에 그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 작업은 한정된 자료에서 그런 결합 가능한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검토하고 나서 일단 연구자 스스로 어떤 演繹의 틀을 설정하게 되면, 다시 無作爲 標本資料들을 이 틀에다 집어 넣으면서 이들이 과연 상당한지의 여부를 檢證하는 편이 훨씬 合理的인 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動詞語幹部分과 接尾形態素들의 結合可能性을 接尾形態素들의 意味資質(Semantic feature)을 설정하면서 살펴나간다. 이들의 결합가능성이 접미형태소들의 속성으로부터 동기지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으로 우리를 유도하는 몇 가지 단순한 요인들을 들어보자. 만일 반대로 동사의 어간부분이 접미형태소들을 구속하고 있는 主體라고 가정해 보면, 우리는 동사의 어간들을 모두 검토하여 그 특질들을 살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한한 동사의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자료가 '열려있는 集合'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사의 어간부분에 內在할 것이라고 가정된 結合可能性도 동사부분의 개방성으로 인하여 한정적인 언급을 할 수 없게 되며, 또한 단언적이고 體系的인 접근을 성립되기 어렵게 만드는 반례의 하나가, 동사부분인 접미형태소를 구속함에 따라, 개방된 동사어간 부분의 숫자만큼 숫적으로도 유사한 개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접미형태소가 숫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제 동사부분이 結合動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틀린 가정임이 드러났다. 이 가정의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는 또 다른 하

나의 가정, 즉 동사어간부분과 접미형태소부분이 서로 結合可能性을 相補적으로 제약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도 일단 우리의 작업에서 留保시켜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동사부분이 한계를 지니지 않는 한 체제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없으며, 이런 속성으로 인하여 접미형태소부분과 맞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 同型反復複合語의 形成에 있어 동사부분과 결합 가능한 접미형태소 부분을 다룬다.

### Ⅲ. 意味資質의 確立

그러면 접미형태소 부분의 意味資質은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 접미형태소 부분들은 아무런 制約도 없이 아무렇게나 동사어간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實現에는 자기 모종의 제약이 있는 것이다. 접미형태소의 의미자질은 이런 제약을 발견함으로써 밝혀지는 것이다.

접미형태소의 의미자질을 결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우선 한 접미형태소하고만 결합이 排他的으로 이루어지는 동사류들을 주목할 것이다. 이들을 하나의 부류로 묶고 거기에서 어떤 공통된 특질들을 찾아 볼 것이다. 이 공통된 특질이란 손쉽게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형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석이 요구되는 일군의 자료를 연구자가 면밀히 판독하고 나서, 스스로의 직관으로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共通資質의 候補들 가운데서 제일 합당하리라고 판단되는 특질을 선택하고, 이를 연구대상의 접미형태소에 內在하고 있는 固有特質 또는 그 의미자질로 對當시킬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유사한 環境 속에서 두 접미형태소를 대비시키며 의미자질을 대당시킬 것이다. 이렇게 한정적인 자료로부터 채택된 자질은 다시 無作爲 標本資料에 의하여 그 包括性이 檢證되어야 한다. 이 검증과정에서 아무런 이상없이 모든 자료를 선별하여 통과시키거나 걸러내며, 또한 왜 그것들이 어떤 것은 통과시키고 어떤 것은 걸러내게 되는지 그 理由를 채택된 자질로써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연구자의 主觀과 判斷에 의하여 설정되고 채택된 어떤 자질은 연구대상의 접미형태소가 가지고 있는 內在的 意味資質로 확정되는 것이며 비로소 그 자질에 客觀性이 주어지는 것이다.

同型反復複合語를 만들 때 동원되는 접미형태소들을 音相에 따라 분류하면

{-악, -억, -작, -옥, -옥, -옥, -직, -씩, -락, -ㄴ, -ㅅ, -웃, -을, -울, -앙, -잉, -웅, -웅, -앗, -잇, -ㅁ, -망}

등 20여종에 이르지만, 이것은 형태소를 어디까지 抽象化시킬 것이냐 하는 分類態度에 따라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필자는 여러 개의 형태소들을 音節末子音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서 {-ㄱ, -ㄴ, -ㄹ, -ㅁ, -ㅅ, -ㅇ}의 여섯 개의 음소형태로 간추려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ㅁ}은 濟州 方言에서는 生産性이 매우 낮아서<sup>6)</sup> 이 {-ㅁ}을 제외한 {-ㄱ}, {-ㄴ}, {-ㄹ}, {-ㅅ}, {-ㅇ}의 다섯 개의 音素形態로 반복을 위한 접미형태소를 한정하였다.

本章에서 이용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5군으로 나누었는데, 다른 접미형태소들의 實現이 不可能한 動詞들을 제1항으로 분류하였고, 그렇지 않고 다른 접미형태소들의 실현을 허락하는 것을 제2항으로 분류하였다.<sup>7)</sup>

1) 제 1군: {-ㄱ}이 실현될 수 있는 자료.

- 제 1항: 절다, 곱다, 늦추다, 두다, 두지다, 둥그리다, 들다, 문직다, 뿔쓰다, 모뜨다, 밀다, 바수다, 부슬루다, 쏘다, 이스다, 질다, 주다, 털다.
- 제 2항: 굽다(曲), 고블리다, 공글다, 구블리다, 궁글다, 굽다, 넓다, 느리다, 돈다(走), 둥글다, 뿔르다, 물르다, 뭉기다, 브디다(近), 붙다, 자올다, 질기다, 질다(長), 할르다, 할트다.

2) 제 2군: {-ㄴ}이 실현될 수 있는 자료

- 제 1항: ㄴ늘다, 곱다(麗), 무끼다, 어질다, 여물다, 죽다, 쫓르다.
- 제 2항: 넓다, 노리다(黃), 녹다, 느리다, 드물다, 미끄럽다, 브디다(近), 어리다, 좁질다, 질기다, 질다.

3) 제 3군: {-ㄹ}이 실현될 수 있는 자료.

- 제 1항: 등기다, 브지란하다.

6) 여기서 생산성이 낮다는 말은 化石化되어 있고, 더 이상 우리 話者가 이 형태소를 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데 활발하게 작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7) 동사어간 부분과 접미형태소 부분들의 結合可能性에 대한 연구는 전적으로 필자의 직관에 의지하였다. 따라서 필자가 제시하는 자료들의 실현가능성이 다른 연구자에 의하여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런 차이가 본고의 論點을 해칠 만큼 큰 힘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 제 2 항 : 굽다(曲), 궁글다, 궁글다, 넘다, 뚱글다, 뚱기다, 미끄럽다, 붙다, 숙다, 좁쌀다.
- 4) 제 4 군 : { -ㅅ } 이 실현될 수 있는 자료.
  - 제 1 항 : 건드럽다, 검다(黑), 기리다, 붉다(赤), 청기다, 지운다, 푸리다(靑).
  - 제 2 항 : 갑다(黑), 굽다(曲), 궁글다, 궁글다, 넘다, 노리다, 녹다, 느리다, 뚱글다, 받다, 숙다, 어리다, 자운다, 청기다, 향르다, 향르다.
- 5) 제 5 군 : { -ㅇ } 이 실현될 수 있는 자료.
  - 제 1 항 : 꿩다, 둘다(懸), 무르다, 빨르다, 비다, 오갈리다, 와리다, 졸다(小), 호리다.
  - 제 2 항 : 갑다(黑), 고불리다, 궁글다, 구분리다, 궁글다, 굽다, 노리다(黃), 둘다, 뚱글다, 드물다, 벨르다, 불르다, 어리다, 짚기다, 짚다.

### 1) [+動作性]의 {-기}

이제는 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접미형태소 부분의 意味資質을 구명할 차례이다. 그런데 각각의 접미형태소의 개별적인 의미자질을 구명하기 전에 {-기, {-니, {-리, {-시, {-이의 접미형태소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의미자질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들의 공통점은 '動詞語幹+接尾形態素'의 반복이라는 데에 있으므로 필자는 그것을 [+反復性]이라는 의미자질로 설정하고 개별적인 접미형태소의 의미자질 구명에 들어가도자 한다.

우선 {-기 과만 결합하고, 다른 접미형태소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動詞는 제1군의 제1항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他動의 動作動詞로서 특히 '손으로 하는 動作'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뒤에 언급되겠지만 접미형태소 {-이에도 몇 개의 他動의 動作動詞는 結合이 가능하다. 따라서 '손으로 하는 動作'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타동의 동작동사는 다른 접미형태소와의 결합은 거부하고 {-기, 혹은 {-이 과만 결합한다. 여기에서 필자는 [動作性]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접미형태소 {-기 과 {-이는 [+動作性]의 자질을 갖게 된다. 이에 반하여 나머지 접미형태소 {-니, {-리, {-시는



他動의 動作動詞를 거부하고 狀態動詞만을 취하므로 [-動作性]의 자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접미형태소 {-기} 이외에 다른 접미형태소의 결합을 허락하는 제2형에서 타동의 동작동사 [고불리다, 구불리다, 굽다, 벨르다, 뭉기다, 할르다, 할트다]를 추려내면 [굽다, 꿇다, 꿇글다, 눕다, 느리다, 돌다, 뭉글다, 물르다, 부디다, 붙다, 자올다, 질기다, 질다]가 남는다. 여기서 필자는 名詞化素인 {-미}과 {-기}에 눈을 돌려본다. 沈在箕(1982: 319-320)에서는 {-미}, {-기} 名詞化素의 意味機能을 두 개의 접근방법으로 설명하였다. 그 첫째는 {-미}, {-기} 動名詞의 名詞의 特性을 [±實體性]에 근거하여 {-미}에는 [+實體性]을 {-기}에는 [-實體性]을 부여함으로써, 그들간의 辨別的 差異를 설명했고, 둘째는 {-미}, {-기} 動名詞의 動詞의 特性을 認識樣相의 [±決定性]에 근거하여 {-미}에는 [+決定性]을, {-기}에는 [-決定性]을 부여함으로써 그들간의 辨別的 差異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時相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미}은 [+完了相]을 反映하는 듯하며, {-기}는 [-完了相]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반복을 위한 접미형태소 {-기}의 의미자질을 구명함에 있어서 이 [決定性]과 [完了相]이라는 개념을 빌어 오고자 한다. [決定性]이란 화자가 발언한 命題的 內容에 대한 화자 자신의 태도, 곧 主觀的 認識樣相의 觀點에서 택한 용어이다. 動詞의 敘述性은 동사가 敘述語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冠形語나 主語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화자 자신의 발언 내용에 대한 판단을 必然的으로 수반한다. 요컨대, 화자의 주관적 판단은 문장을 해석할 때에 빠뜨려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眞僞 判斷에 관여하지 않은 이른바 遂行動詞는 아무런 사실도 함及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여기에서는 遂行動詞를 포함한 모든 동사가 화자의 처지에서는 하나의 事實的 敘述者(factive predicator)로 간주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화자의 인식양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sup>8)</sup> 국어에서 서술어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活用語尾形態素와 樣相副詞의 사용으로 역시 화자의 意志的 判斷의 必然性·可能性 등을 나타낸다.

8) 遂行動詞는 所謂 'speech act' 理論에서 話者·聽者·話況上의 眞僞性의 條件을 설정하고 이들이 서로 이런 조건과 절차를 잘 준수하게 된다는 가정에서 T·F를 모든 文章에 주고 있다. 이는 종래의 명제취급법이 다만 단정적인 명제 하나만을 취급하는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일상언어까지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열어주는 것이다.

- (1) a. 아이고 저 늦 엷음엷음 엷은 것광.  
 (1) b. 이진 새금새금현 게 춤 맛 좋다.  
 (2) a. 는 무시걸 경 두작두작 헤염더?  
 (2) b. 무사 그더만 경 모드락모드락 헤여신고?

위의 예에서 “엷음엷음, 새금새금”은 그 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도달했다는 화자의 판단이 결정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곧 認識樣相의 [+決定性]을 획득한 것으로서 이 상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既定相을 표현한다. 이와 반면에 “두작두작, 모드락모드락”은 그 상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곧 인식양상의 [-決定性]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화자가 상태에 대해 어떤 판단이 있을 豫定임을 나타낸다. 이것을 우리는 認識의 未定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고쳐 말한다면 [+決定性]은 話者의 認識樣相에서 어떤 사건이 일단락지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決定性]은 어떤 사건이 논의되는 것은 틀림없으나 화자의 인식양상에서 아직 일단락지어지지 않았거나 아직도 그 사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복을 위한 접미형태소 |-기는 先行動詞語幹의 敘述的 意味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화자가 생각하기 때문에 화자의 그 동사에 대한 판단이 留保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식양상으로서의 決定性은 相의 관점에서의 完了相과 表裏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므로 |-기는 [-결정성]과 동시에 [-완료성]의 자질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자. [굽다, 공글다, 궁글다, 녀다, 느리다, 든다, 둥글다, 물르다, 브디다, 붙다, 자올다, 질기다, 질다]를 일별하면 [굽다, 공글다, 궁글다, 둥글다]는 直觀的으로 圓形性을 가진 어휘라고 여겨진다. 여기서 [圓形性]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둥근 형상 즉 圓形·球形을 느끼게 하는 성질을 일컫는 것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굽다’<sup>9)</sup>는 ‘曲’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굽다~굽다」는 모음 /u~o/의 교체형이고 이 ‘굽다’ 역시 圓形性을 지닌다. 따라서 |-기에는 [+圓形性]의 자질이 부여되겠고, |-니은 원형성을 지닌 어휘와는 결합하지 않으므로 [-圓形性]의 자질을 부여받는다.

9) ‘굽다’는 ①한쪽으로 조금 휘어져 있다. ‘굽다’의 작은 말(曲). ②손발이 몹시 차서 움직이지 못하다. ③보기에 산뜻하고 아름답다. 즉 ‘예쁘다’의 의미, ④‘숨다’(제주 방언)와 같이 쓰이지만 여기서 ‘굽다’는 ①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나머지 어휘들을 다시 한번 주의깊게 살펴보면 [넙다, 느리다, 느리다, 붙다, 질다]를 하나의 묶음으로 추려낼 수 있다. 필자는 이 어휘들을 “時間·空間感覺動詞”라고 부르려고 한다. 시간적으로 「느리다」(緩)라는 觀念은 空間的으로 「너르다」(廣·寬)는 觀念과 바로 통한다. 「느리다」역시 “近”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時間·空間感覺을 나타내는 어휘이며, 「붙다」는 본래 時間·空間을 다 포함하여 “밀착·접근·긴박”의 뜻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音의 변화는 의미의 변화와 함께 하여 時間·空間으로 분리되며 「빠르다」는 주로 시간의 “急速”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한편, [노리다(黃), 붉다(赤), 푸리다(靑)] 등은 접미형태소 ㄱ-기 과 결합하기를 거부하는 단어이므로 ㄱ-기은 [-色彩性]의 자질도 가진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반복을 위한 접미형태소 ㄱ-기은 우선 가장 큰 특징으로 타동의 동작동사가 결합가능하다는 점에서 [+動作性]의 자질을 배당받고, 다음으로 [+時間·空間感覺], [+圓形性], [-色彩性]의 자질이 첨가된다. 그리고 統辭論의 견지에서 고찰했을 때 ㄱ-기은 話者의 認識樣相에서는 [-決定性]을 나타내고, 相의 觀點에서는 [+完了性]을 나타낸다. 이 여러가지 의미자질 중에서 [+動作性]이 접미형태소 ㄱ-기를 선택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접미형태소 ㄱ-기를 [+動作性]의 ㄱ-기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 2) [+計量性]의 ㄱ-기

그러면, 반복을 위한 또 하나의 접미형태소 ㄱ-기에는 어떠한 자질이 배당되는가? 우선 [고불리다, 굶다, 멜르다, 숙다, 질다] 등의 他動的 動作動詞와의 결합을 피하고 [ㄹ늘다, 꺾늘다, 드물다, 무끼다, 미끄럽다, 어질다, 여물다, 죽다, 쫄르다, 질기다] 등의 狀態動詞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動作性]의 자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곱다」를 제외한 [공글다, 궁글다, 동글다] 등의 圓形性을 지닌 狀態動詞와의 결합을 꺼린다는 점에서 [-圓形性]의 자질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곱다」가 ㄱ-기와 결합해서 「고분고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박고박, 고불고불, 고붓고붓」과 같이 “曲”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 “예쁘다”의 의미 즉 “麗”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앞에서 언급했던 [時間·空間感覺]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쫄르다”는 “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意味的으로 “近”과 관련이

있다. \*kol-(分)에서 파생된 말로 原形인 「ㄹ다」(分)에서 어두음이 구개음화한 「즈르다」(切)「자르다」「짧다」(短)로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눅다”라는 표현도 “緩”을 의미하는 “눅다”(安·穩·濕)의 母音交替形으로 “너르다”系에 속하는 時間·空間感覺動詞이다. 따라서 [ㄹ는다, 께는다, 넓다, 눅다, 느리다, 보디다, 죽다, 쫄르다, 질다]는 [時間·空間感覺]이라는 속성으로 묶이게 되어 접미형태소 |-니은 [+時間·空間感覺]의 의미자질을 부여받고, [노리다](黃)처럼 색채성을 지닌 어휘가 결합할 수 있으므로 [+色彩性]의 자질이 첨가된다.

한편, [ㄹ는ㄹ는, 너븐너븐, 드문드문, 무껌무껌, 미끈미끈, 보딘보딘, 어린어린, 어진어진, 여문여문, 줌진줌진, 쫄른쫄른, 질긴질긴] 등은 화자의 견지에서 실질적 상태가 분명하게 인식되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화자의 판단으로는 [ㄹ는다, 넓다, 드물다, 무꺼다, 미끄럽다, 보디다, 어리다, 어질다, 여물다, 줌질다, 쫄르다, 질기다] 등의 상태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고불고불, 궁글궁글, 등갈등갈, 몽갈몽갈, 보질보질, 수글수글, 줌질줌질] 등은 그 실질적 상태가 화자의 인식양상에서는 未定으로 남아있는 듯이 보인다. 따라서 반복을 위한 접미형태소 |-니은 [+決定性]다음, |-리은 [-決定性]을 그 의미자질로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결정성의 개념은 다시 相의 觀點에서 完了相과 서로 表裏關係를 보인다.<sup>10)</sup>

10) 우리는 앞에서 |-기이 화자의 인식양상으로 보아 [-決定性]을 나타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名詞가 事物의 名稱을 主軸으로 한다고 할 때에, 그 명사는 그것이 지시하는 바 사물의 존재를 언표하는 수단이 되듯이, 動詞는 敘述性을 본령으로 하는데, 그 서술성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해되도록 記述되어야 하며, 화자의 인식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마음의 예를 보자.

(a) 李氏女戒에 Nil오더 가난호닌 가난호를 便安히 너기고 가슴머닌 가슴머로몬 警戒홀디니 간난코 제 便安히 너기지 아니호닌 가난을 붓고려 너비 求호느니. (內訓-).

위의 예에서 “가난호+이”에서 “가난호”는 화자의 견지에서 “가난호-”의 실질적 상태가 분명하게 인식되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화자의 판단으로는 “가난호-”의 상태가 既定事實로 받아들여졌다는 표현으로서 “가난호”이란 관형형을 취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양상에서의 판단의 [+決定性]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 (3) a. 그 줄은 졸른졸른해여라.  
 (3) b. 가인 잘도 브질브질 걸나.

위의 예에서 ‘졸른졸른’이라고 記述된 대상의 견지에서 보면, ‘졸른졸른’의 |-니은 [+完了性]을 보이고, ‘브질브질’이라고 기술된 사람의 견지에서 보면 ‘브질브질’의 |-리는 [-完了性]의 자질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니은 이미 완성된 상태(정도)를 나타내고, |-리는 이제 장차 완성될 상태(정도)를 내포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반복을 위한 접미형태소 |-니은 우선 [-動作性]의 자질을 제일 먼저 배당받고, [-圓形性]의 자질을 갖는다. 그리고 [+時間·空間感覺]의 자질도 부여받으며, 여기에 [+色彩性]의 자질이 첨가된다. 그리고 統辭論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화자의 인식양상에서는 [+決定性]을 나타내고 相의 관점에서는 [+完了性]을 나타낸다. 접미형태소 |-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時間·空間感覺]이라고 여겨진다. 이 時間·空間感覺은 시간·거리·길이·면적·크기 등 모두 計量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미형태소 |-니을 [+計量性]의 |-니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 3) [性狀性+a]의 |-리

反復을 위한 또 하나의 접미형태소 |-리 역시 [고불리다, 구불리다, 굽다,

이에 반하여 “간난코 제 便安히 너기지 아니홀+이”에서는 |-리 관형형이 인식양상에서 판단의 [-決定性]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간난코 제 便安히 너기지 아니홀-”의 실질적 상태가 아직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므로 그 실질적 상태는 화자의 인식양상에는 未定으로 남아있음을 |-리 관형화소가 반영한다고 보자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화자의 인식양상으로서의 決定性은 그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대상, 즉 “가난홀+이” “아니홀+이”에서 바로 그 가난하다거나 아니하다고 記述된 사람의 견지에서 보면 “가난홀”의 |-니, “아니홀”의 |-리는 결과적으로 相(aspect)의 要素를 나타내게 된다. 이 때에 |-니은 [+完了性]을, |-리는 [-完了性]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때에 인식양상으로서의 決定性은 相의 관점에서의 完了相과 서로 表裏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완료는 결정된 것, 곧 既定의 사실로서 이 세계의 실제상태이고, 미완료는 그것이 예정된 것이거나 어떤 상태의 진행상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客觀化시킬 수 있는 세계의 실제상태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멜르다, 할르다] 등의 타동의 동작 동사와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動作性]의 자질을 가지고, 1-리 과는 상대적으로 色彩語와는 결코 결합하지 않는다. 만약에 색채어에 1-리를 결합시키면 [\*푸릴푸릴, \*노릴노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色彩語]의 의미자질을 부여할 수 있겠다. 그리고 1-리이 圓形性을 지닌 상태동사와의 결합을 피한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圓形性을 지닌 상태동사와 결합하여 [+圓形性]의 자질을 부여받는다. 또한 접미형태소 1-리은 앞의 1-거, 1-니 과는 달리 時間·空間感覺動詞와는 결합을 피한다. 즉 [ㄹ늘다, 께늘다, 녹다, 느리다, 번디다, 죽다, 쫄르다, 질다(長)]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공간감각동사 중 [넙다]와 [붙다]와는 결합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넙다]가 1-리 과 결합해서 [너붙너붙]이 되고, [붙다]가 1-리 과 결합해서 [부잘부잘]이 될 때, 매개기능을 하는 /-우/와 /아/의 역할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접미형태소 1-리은 1-니, 1-시 과 같이 [-動作性]의 자질을 먼저 배당받고, 여기에 [-色彩性]과 [+圓形性]의 자질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時間·空間感覺]의 의미자질이 추가된다. 또한 統辭論的인 측면에서 고찰했을 때 화자의 인식양상으로 보여주는 [-決定性]을 나타내고, 相의 관점에서서는 [-完了性]을 나타낸다. 이러한 여러가지 의미자질들이 있지만 1-리의 의미자질을 꼬집어서 무어라고 말하는 것은 필자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1-니, 1-리, 1-시의 공통적인 의미자질인 [+性狀性]에다가 1-리를 1-니, 1-시 과 구별해주는 未知의 의미자질 a를 첨가시킨 [+性狀性+a]를 사용하여 1-리를 [性狀性+a]의 1-리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 4) [+色彩性]의 1-시

반복을 위한 접미형태소 1-시는 먼저 1-니, 1-리 과 같이 [고블리다, 구블리다, 굶다, 멜르다] 등의 他動的 動作動詞와의 결합을 피하고 대신에 [건드럽다, 검다, 붉다, 성기다, 어리다, 지울다, 질기다, 푸리다] 등의 상태 동사와 결합하므로, 여기서 우선 [-動作性]의 자질을 배당받는다. 그리고 1-리 과 같이 圓形性을 지닌 狀態動詞와 결합한다. 따라서 두번째로는 [+圓形性]의 자질을 지닌다. 또한 ‘검다(黑), 노리다(黃), 붉다(赤), 푸리다(靑)’ 등과

결합하여 色彩語가 되므로 [+色彩性]의 자질도 첨가된다. 그리고 접미형태소 {-시}는 [넙다, 녹다, 느리다, 브디다]와는 결합을 하고, [붙다, 질다]와는 결합을 피한다. 여기서 [붙다, 질다]의 처리문제가 생기지만 필자는 우선 {-시에 [+時間·空間感覺]의 자질을 부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는 [-動作性]의 자질과 함께 [+圓形性], [+色彩性]의 자질을 가지고, 여기에 [+時間·空間感覺]의 자질을 첨가하여 갖는다. 또한 [거뭇거뭇, 푸릿푸릿]은 완전히 검거나 푸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검지 않거나 푸르지 않은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화자의 인식양상으로 보아서는 [-決定性]을 나타내고 相의 관점에서 보면 [-完了性]을 나타낸다. 이 여러가지 의미자질 중에서 [+色彩性]이 접미형태소 {-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므로 접미형태소 {-시}를 [+色彩性]의 {-시}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 5) [-計量性]의 {-오}

마지막으로 반복을 위한 접미형태소 {-오}의 의미자질을 배당해보기로 하자. 우선 {-오}는 {-기}과 같이 [고블리다, 굶다, 돌다(懸), 뻘르다, 오글리다, 와리다] 등의 他動의 動作動詞를 취하므로 [+動作性]의 자질을 먼저 배당받는다. 그리고 [공글다, 궁글다, 둥글다, 오글리다]와 같은 圓形性을 지닌 동사와 결합해서 [공글랑공글랑, 궁글랑궁글랑, 둥글랑둥글랑, 오글랑오글랑]과 같이 실현되므로 [+圓形性]의 자질도 부여받는다. 또한 [검다(黑), 점다, 노리다(黃)]와 같은 色彩語와도 결합해서 [가망가망, 거멍거멍, 노랑노랑]과 같이 실현되어 여기에 [+色彩性]의 자질이 부가된다. 그런데 이 접미형태소 {-오}와 결합하지 않으려는 동사 중에 [꺾는다, 넙다, 녹다, 느리다, 브디다, 붙다, 죽다, 쪼르다] 등의 時間·空間感覺語彙들이 있어서 {-오}는 다시 [-時間·空間感覺]의 자질을 배당받는다. {-오}와 {-기}는 같이 [+動作性]과 [+圓形性]의 자질을 가지므로 동사어간이 [+時間·空間感覺]이나, [-時間·空間感覺]이냐에 따라서 {-기}과 결합하기도 하고 {-오}와 결합하기도 한다. 즉 {-오}를 {-기}와 구별되게 만들어 주는 의미자질은 [-時間·空間感覺]이 된다. 따라서 {-오}를 [-計量性]의 {-오}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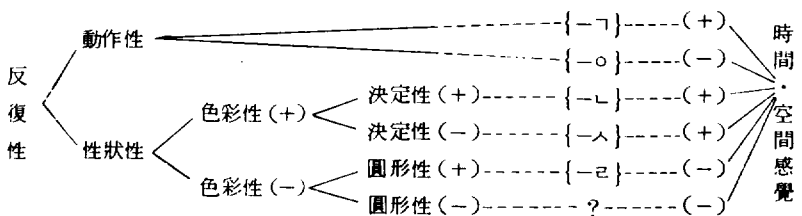
### IV. 意味資質의 體系 및 檢證

#### 1) 意味資質 體系化 模型

여기에서는 III에서 살펴본 의미자질들을 체계화한 모형틀 만들어 보고자 한다. 우선 {-기}, {-니}, {-리}, {-시}, {-이}의 접미형태소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共通의인 의미자질은 [+反復性]이다. 이들 접미형태소들은 모두 반복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이 [+反復性]에서 반복되는 동사가 動作動詞냐 狀態動詞냐에 따라 [動作性]과 [性狀性]으로 나뉜다. 앞에서 다룬 때에는 [動作性]의 개념만을 사용해서 [+動作性], [-動作性]으로 구분했으나 여기서는 [性狀性]의 개념도 사용하겠다. 다섯 개의 접미형태소들 중 {-기}과 {-이}은 [+동작성]의 자질을 가지는데, [+時間·空間感覺]을 지닌 어휘들과 결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기}과 {-이}이 구분된다.

한편, [性狀性]은 먼저 [+色彩性]이나 [-色彩性]이냐에 따라 나뉘는데 [+색채성]인 것은 {-니}과 {-시}이 되고, [-색채성]인 것은 {-리}이 된다. 그리고 {-니}과 {-시}은 둘다 [+時間·空間感覺]이지만 前者는 [+決定性]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後者는 [-決定性]의 자질을 가지는데에서 서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色彩性], [-時間·空間感覺]이면서 [+圓形性]을 지닌 것은 {-리}이 된다. 그리고 [-色彩性], [-圓形性], [-時間·空間感覺]의 자질을 지닌 접미형태소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다섯 개의 접미형태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의 체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두드러진 자질들만을 나타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하여 훗날 보완하기로 한다.

## 2) 生成事例 例示 및 檢證

이상에서 설정된 접미형태소들의 의미자질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검증해 보기로 하자.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결합 가능의 여부를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어야 그 有效性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                         |                      |
|-------------------------|----------------------|
| (4) a. 너팍너팍<br>/넙팍넙팍    | (5) a. *노닥노닥         |
| (4) b. 너분너분             | (5) b. 노련노련          |
| (4) c. 너불너불             | (5) c. *노릴노릴         |
| (4) d. 너붓너붓             | (5) d. 노릿노릿<br>/노룻노룻 |
| (4) e. *너방너방<br>/ *너빙너빙 | (5) e. 노랑노랑          |

(4)에서 “넙다”라는 단어는 [+時間·空間感覺], [-動作性]의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접미형태소 |-니, |-시 과는 당연히 결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니과 |-시는 [+時間·空間感覺], [-動作性]의 자질을 가진 접미형태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은 [+時間·空間感覺]이지만 [+動作性]이고, |-리는 [-時間·空間感覺]이지만 [-動作性]이다. 그러나 “넙다”라는 단어는 |-개, |-리 과도 결합한다. 이것은 “넙다”가 |-개, |-리 과 결합해서 “넙넙넙”, “넙넙넙”이 될 때 /-아/와 /-우/의 매개기능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은 [-時間·空間感覺], [+動作性]의 자질을 가진 접미형태소이기 때문에 “넙다”라는 단어는 |-이 과의 결합을 꺼리는 것이다.

한편, (5)의 “노리다”라는 단어는 ‘黃’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色彩性], [-動作性]의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접미형태소 |-니, |-시 과는 결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니과 |-시는 [+色彩性], [-動作性]의 자질을 가진 접미형태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은 [-色彩性], [+動作性]의 자질을 가진 접미형태소이므로 “노리다”와의 결합이 불가능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色彩性], [+動作性]의 자질을 가지는 }-이과의 결합은 가능하지만, [-動作性], [-色彩性]의 자질을 가지는 }-리과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노리다”라는 단어가 [-動作性]의 속성이 가지는 힘보다 [+色彩性]이 지니는 속성이 훨씬 우세한 어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6)a. 공글락공글락
- (6)b. \*공근공근
- (6)c. 공글공글
- (6)d. 공긱공긱
- (6)e. 공글랑공글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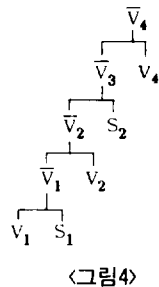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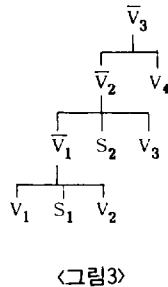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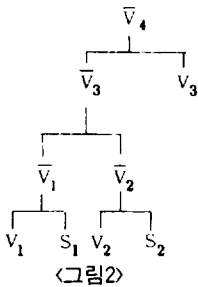
위의 예에서 “공글다”라는 단어는 [+圓形性], [-動作性]의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접미형태소 }-리과 }-시과는 결합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리과 }-시의 의미자질이 [+圓形性], [-動作性]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접미형태소 }-기과 }-이은 [+動作性]의 속성을 갖지만 [+圓形性]의 속성을 지녀 “공글다”라는 단어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그런데 }-니은 [-動作性]의 속성을 갖지만 [-圓形性]의 속성을 가져 “공글다”라는 단어와 결합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글다”라는 단어가 [-動作性]이라는 속성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圓形性]이라는 속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7)a. 글각글각/글긱글긱  
글작글작/글적글적
- (7)b. \*글근글근
- (7)c. \*글글글글
- (7)d. \*글긱글긱
- (7)e. 글강글강

여기서 “글다”라는 단어는 [+動作性]의 속성을 가지는 他動의 動作動詞이다. 따라서 [-動作性]의 속성을 지니는 }-니, }-리, }-시의 접미형태소와는 결합을 피하고, [+動作性]의 속성을 지니는 }-기, }-이과만 결합하는 것이다.

### V. 生成<sup>11)</sup>上的 統辭構造

본장에서는 同型反復複合語의 통사구조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하나의 동형반복복합어에서 동사어간(Verb stem)을 'v', 그 동사어간과 결합하는 접미형태소를 's'라 하고 다음의 그림들을 보자.



여기서 <그림 2>와 <그림 3>은 모순과 난점을 지니는 구조<sup>12)</sup>이고, <그림 4>는

- 11) 여기서 '生成'이란 單語 生成을 말한다.
- 12) <그림 2>와 같이 이들이 對等한 結合構造를 이룬다면, 그들은 姊妹關係를 이루어서 서로 대등한 값을 가지므로 이들이 어느 하나씩만을 실현시킨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구조는 V<sub>1</sub>과 V<sub>2</sub>가 언어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S<sub>i</sub>가 접미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並列構造에서는 V<sub>2</sub>가 실현되지 않을 때, S<sub>2</sub>도 따라서 실현되지 않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들은 병렬구조를 이루므로 V-bar<sub>3</sub>의 실현에서 V-bar<sub>1</sub>과 V-bar<sub>2</sub>가 함께 실현되거나 그 중 하나만 실현되도록 예측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병렬구조를 이루는 요소들 사이에 어떤 결합매개자를 위한 交點(node)이 없으므로 V-bar<sub>1</sub>과 V-bar<sub>2</sub>의 결합, V-bar<sub>3</sub>와 V<sub>3</sub>의 결합 등이 그 必然性을 부여받지 못한다. 제일 밑에 있는 교점들 중에서 동사 V<sub>1</sub>이 S<sub>1</sub>의 도움을 얻어 실현되지만, V<sub>1</sub>-S<sub>1</sub>과 뒤의 동사인 V<sub>3</sub>와의 결합도 전혀 필연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구조에서는 V<sub>1</sub>-S<sub>1</sub>-V<sub>3</sub>의 單-形態의 實現만을 보이는 경우의 설명이 불가능해진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V<sub>1</sub>-S<sub>1</sub>과 V<sub>3</sub>의 결합을 도우는 모종의 형태소 z의 설정이 필요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여기서 S<sub>1</sub>은 V<sub>1</sub>의 성립을 도와주는 기능만을 하게 되는데, V<sub>3</sub>도 동사이므로 다른 S<sub>i</sub>의 존재가 덧붙여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구조상의 예측은 언어현실과 거리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동형반복복합부사에 대한 통사구조를 <그림 2>와 같이 설정한다면 임의의 교점 및 형태소 설정이라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며 문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bar{X}$ 이론<sup>13</sup>에 따라서 結合構造를 核要素-附加要素(head-complement)로 설정한 것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구조이다. <그림 4>에서  $\bar{V}_1$ 의 핵은  $\bar{V}_3$ 가 되고 부가요소는  $V_3$ 가 된다. 그리고  $\bar{V}_3$ 의 궁극적인 핵은  $V_1$ 이 되는 것이다. 이를 달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ar{V}_4[[\bar{V}_3[[\bar{V}_2[[\bar{V}_1[[V_1]S_1]]V_2]]S_2]]V_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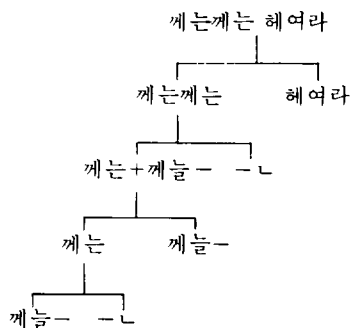
여기서 각각의 V zero-bar인 어휘소들은 고유의 의미들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결합에 따라서 의미가 핵요소에 첨가된다. 이때  $\bar{V}_4$ 가 1항술어<sup>14</sup>일 경우에는 VP( $\bar{V}$ )로 代替되고, 2항술어<sup>15</sup>일 경우에는 NP와의 결합을 통해 상위교점 VP( $\bar{V}$ )를 형성한다. 구체적인 예를 보기로 하자. (단, 여기서 語末語尾는 편의상 논외로 한다).

- (8)a. 가이 홀복은 계는계는해여라.  
 (8)b. 자인 지 가만만 두작두작해염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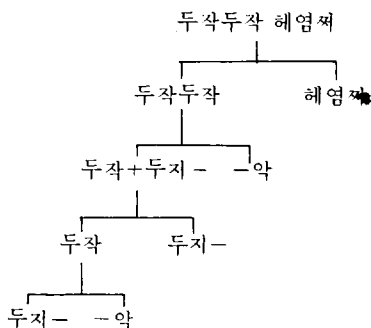
한편, <그림 3>과 같은 구조에서는  $V_1$ 과  $V_2$ 의 결합을 주도하는 접미형태소는  $S_1$ 이며  $V_1-S_1-V_2$ 와  $V_3$ 의 결합을 주도하는 접미형태소는  $S_2$ 가 된다. 여기서 단일형태를 보이는 상징어는  $V_2$ 가 실현되지 않는 형태이므로 자연히  $S_1$ 의 실현이 불필요하게 된다. 단지  $V_1-S_2-V_3$ 의 결합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3>은 <그림 2>에 비해  $V_1-S_2-V_3$ 의 단일형태의 실현만을 보이는 경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그러나  $\bar{X}$ 이론에 따른 주종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二肢的 構造를 형성한다. 여기서 三肢束을 이루는 요소 중의 하나는 三肢를 결합시켜주는 접미형태소인 것이다. 따라서  $\bar{V}_2$ 와  $V_4$ 가 결합할 때에는 또 다시  $S_3$ 를 필요로 하지만, 언어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이 구조는 접미형태소의 처리가 잘못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것이다.

- 13)  $\bar{X}$ 는 'X를 핵으로 하는 결합구조'라는 의미를 지닌다. X는 임의의 범주를 뜻하는 것으로 名詞나 動詞, 形容詞 어느 것이나 그 내용이 될 수 있다.  $\bar{X}$ 는 X와 C로 구성되며,  $\bar{X}$ 에서 bar는 2개의 bar까지 허용한다. 곧  $\bar{X}$ 는 XP와 동일한 것이다. X zero-bar는 편의상 bar를 안붙이고 X로만 나타내기도 한다.  $\bar{X}$ 는 핵으로 다시 동일층위의  $\bar{X}$ 를 가질 수도 있으나 상위 bar는 갖지 못한다.
- 14) 1항술어: 술어가 하나의 論項(argument)을 취하여 완성된 하나의 명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경우이다. ex) 꽃이 붉다.
- 15) 2항술어: 술어가 두개의 논항을 취하여 완성된 하나의 명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경우이다. ex) 철수는 선생님을 존경한다.

우선 <그림 4>의 구조를 ‘계는계는 헤여라’와 ‘두작두작헤엄쩌’에 적용시켜 보기로 하겠다.



<그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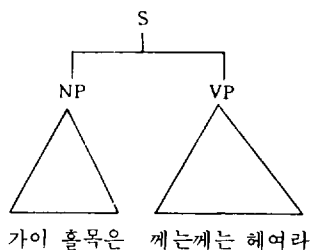


<그림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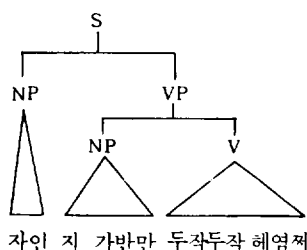
<그림 5-1>에서 핵은 V<sub>1</sub>인 ‘계늘-’이 된다. 여기에 접미형태소 ‘-ㄴ’이 붙은 것이다. 이 접미형태소는 [-동작성], [-원형성], [+시간·공간감각], [+결정성], [+완료성]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고, 그 앞의 V<sub>1</sub>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S<sub>i</sub>의 반복은 V<sub>1</sub>과 V<sub>2</sub>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의 외연이 실현됨으로 인하여 가능해진다.

또한 <그림 5-2>에서 핵은 V<sub>1</sub>인 ‘두지-’가 되고 여기에 접미형태소 ‘-악’이 붙은 것이다. 이 접미형태소는 [+동작성], [+원형성], [+시간·공간감각], [-색채성]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고, 역시 그 앞의 V<sub>1</sub>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한편, (8)a와 (8)b의 상위결합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1>



<그림 6-2>

〈그림 6-1〉과 〈그림 6-2〉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끼는끼는 허다’는 1항술어이므로 곧바로 VP로 代替되지만, ‘두작두작 허다’는 2항술어이므로 NP인 ‘지 가반만’과의 결합을 통하여 상위교접 VP를 형성하는 것이다.

## VI. 結 論

濟州 方言의 반복복합어 중 同型反復複合語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 중에서 다시 ‘動詞語幹+接尾形態素’의 反復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었던 어휘를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반복복합어에 있어서의 반복은 단순한 음의 반복만이 아니라 의미의 반복으로서 連續·多數·強調·리듬 등의 效果를 가져오기 때문에 語感上的의 의미를 한층 심화시킨다고 언급되어 왔다.

2) 이들의 반복에 대한 機制는 意味論的으로, 統辭論的으로 살필 수 있다. 의미론적으로 살필 때에는 각각의 접미형태소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자질들을 체계화한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그리고 통사론적으로 살필 때에는

$$\bar{V}_4[[\bar{V}_3[[\bar{V}_2[[\bar{V}_1[[V_1]S_1]]V_2]]S_2]]V_3]$$

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반복을 위한 접미형태소 }-끼, }-니, }-리, }-시, }-이은 모두 [+反復性]이라는 자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접미형태소 }-끼은 [+동작성], [-색채성], [+원형성], [+시간·공간감각], [-결정성], [-완료성]의 의미자질을 가지는데, 이들 중 [+동작성]이 }-끼을 선택하게 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접미형태소 }-니은 [-동작성], [+색채성], [-원형성], [+시간·공간감각], [+결정성], [+완료성]의 의미자질을 가지는데, 이들 중 [+시간·공간감각], 즉 [+계량성]이 }-니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자질이 된다.

접미형태소 }-리은 [-동작성], [-색채성], [+원형성], [-시간·공간감각], [-결정성], [-완료성]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그런데 필자가 }-리를 [성상성+a]의 }-리이라고 부른 것은 위의 여러가지 의미자질들 중에서

|-리만의 독특성을 나타내주는 의미자질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은 확실히 구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접미형태소 |-시은 [-동작성], [+색채성], [+원형성], [+시간·공간감각], [-결정성], [-완료성]의 의미자질을 가지는데 이들 중 [+색채성]이 |-시를 선택하게 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자질이 된다.

접미형태소 |-이은 [+동작성], [+색채성], [+원형성], [-시간·공간감각]의 의미자질을 가지는데 이들 중 [-시간·공간감각] 즉, [-계량성]이 |-이를 특징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자질이다.

## 參 考 文 獻

- 康祐順(1987:未刊),“濟州方言의 反復複合副詞 形成에 대한 規則化 試論”,  
(濟州大學校 國語教育科)
- 姜公宅(1986),“濟州方言의 反復複合副詞 構造 研究.”(碩論,濟州大學校).
- 金完鎭(1957),“-n, -l, 動名詞의 統辭論的 機能과 發達에 대하여”,國語研  
究 제2호,國語研究會.
- 金智弘(1986),“몇 語形成 接尾辭에 대하여”,白鹿語文 創刊號,濟州大學校  
國語教育研究會.
- 閔賢植(1984),“/스럽다, -롭다/ 접미사에 대하여”國語學 13.
- 沈在箕(1982),國語語彙論,集文堂.
- 李英姬(1982),“濟州島方言의 象徵語 研究”,(碩論,濟州大學校).
- 李翊燮(1965),“國語複合名詞의 IC分析”,國語國文學 30號.
- 李翊燮(1983),“現代國語의 反復複合語의 構造”,白影鄭炳昱先生還甲紀念論  
叢 I,國語學研究,新丘文化社.